



## 스리랑카

# 조기 총선 결과와 향후 전망

지난 4월 2일 실시된 스리랑카 총선에서 쿠마라통가 대통령이 이끄는 통일국민자유연맹(United People's Freedom Alliance: UPFA)이 위크레메싱헤 수상이 속한 집권 여당인 통일국민당(United National Party: UNP)을 누르고 승리하였다.

통일국민당은 내전악화와 경기침체로 정국이 혼미한 가운데 2001년 12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의회 과반수 확보에 성공하면서 7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룬 바 있다. 통일국민당의 위크레메싱헤가 총리로 임명된 이후 대통령이 내각에서 제안하는 정부시책에 대해 승인을 미루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여야 대립이 심화되어 왔다. 특히

쿠마라통가 대통령은 행정부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스리랑카 내전<sup>1)</sup>을 종식시키기 위해 타밀반군과의 평화협상<sup>2)</sup> 추진 과정에서 과도하게 양보하고 있다는 데에 크게 반발하여 지난 2월 국회를 해산함으로써 이번 조기 총선이 실시되었다. 이로써 스리랑카는 지난 5년 동안 3번이나 총선을 치르게 되어 대통령과 수상이 속한 양대 정당간의 정쟁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과반수 의석 확보에는 실패하여 연정 불가피

총선 결과 총 225개 의석에서 통일국민자유연맹 105석, 통일국민당 82석, 타밀국민행동 22석, 불교당 9석을 각각 차지하여

- 1) 스리랑카 내전은 스리랑카 인구의 74%를 차지하는 지배민족인 싱할리족(불교)과 전인구의 17%인 소수민족 타밀족(힌두교)간의 분쟁으로 1983년 스리랑카로부터 완전 독립을 주장하는 급진조직 '타밀 엘람 해방 호랑이(LTTE)'가 타밀족 내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내전이 본격화 되었음.
- 2) 평화협상의 진전은 2002년 12월 내전종식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위크레메싱헤의 총선 승리와 함께 오랜 내전으로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려온 양측 주민들이 휴전을 원하고 9.11 테러이후 미국이 미국 거주 타밀족의 LTTE 지원을 봉쇄하면서 LTTE측이 무장투쟁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졌음.

<표> 선거구별 정당별 의석 분포

선거구	IIPFA (자유연맹)	IINF (통일국민당)	TNA (타밀국민행동)	JHU (불교당)	기타	총의석
Colombo	8	9	0	3	0	20
Gampaha	9	6	0	2	0	17
Kalutara	6	3	0	1	0	10
Mahanuwara	5	6	0	1	0	12
Matale	3	2	0	0	0	5
Nuwara-Eliya	2	4	0	0	1	7
Galle	6	4	0	0	0	10
Matara	5	3	0	0	0	8
Hambantota	5	2	0	0	0	7
Kurunegala	9	7	0	0	0	16
Puttalam	5	3	0	0	0	8
Anuradhapura	5	3	0	0	0	8
Polonnaruwa	3	2	0	0	0	5
Badulla	3	5	0	0	0	8
Moneragala	3	2	0	0	0	5
Ratnapura	6	4	0	0	0	10
Kegalle	5	4	0	0	0	9
Jaffna	0	0	8	0	1	9
Vanni	0	1	5	0	0	6
Batticaloa	0	0	4	0	1	5
Trincomalee	1	0	2	0	1	4
Digamadulla	3	1	1	0	2	7
전국구	13	11	2	2	1	29
합 계	105	82	22	9	7	225

자료 : www.viewswire.com

통일국민자유연맹이 승리하였으나 과반수 의석 확보에는 실패함으로써 4월 22일 국회출범을 앞두고 타밀계, 불교계 등 소수정당과의 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번 총선에서 통일국민당이 패배하게 된 원인은 첫째, 위크레메싱헤 전 총리가 강력히 추진해 온 타밀 반군과의 평화협상 추진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 점이다. 통일국민당은 2001년 총선 당시 타밀 반군에 대한 무력진압과 평화협상 추진이라는 강은 양면정책을 추진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나 이후에도 타밀반군의 테러 공격

이 지속되면서 인구의 74%를 이루고 있는 싱할리족들의 무력감이 확산되었다. 또한 미 테러사태로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의 수입 규모 축소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되어, 평화정착 문제 보다 물가 안정 및 소득 불균형 축소와 같은 경제 문제가 주요 선거 이슈로 부각되었다. 즉, 위크레메싱헤 전 총리가 평화협상 과정에서 타밀 반군측에 지나친 양보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싱할리족에게 팽배해지면서 강경파인 쿠마라통가 대통령에게 표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둘째, IMF 및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들이 지원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통일국민당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긴축재정,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을 시행함으로써 내수가 위축되고 실업이 증대되어 국민들의 반발이 커졌기 때문이다. 위크레메싱헤 전 총리는 집권 당시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IMF 등으로부터 지원을 얻고자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조세개혁, 외국인투자규제 완화, 유류 및 전기요금에 대한 가격 규제 폐지 등을 시행하였고 이러한 개혁정책이 국제기구들의 인정을 받아 IMF가 2003년 4월, 총 5억 6,700만 달러의 빈곤퇴치 및 성장촉진 차관(PRGF)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세계은행도 2003~06년 동안 총 9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 중 IMF 자금은 2006년 2월 말까지 총 8회에 걸쳐 균등분할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스리랑카 정부는 자금 지원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금융, 무역, 조세 개혁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국영기업의 민영화, 공무원 정원 및 급여 동결, 공무원 연금 개혁 등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경제의 투명성과 효율성은 제고되고 있지만, 경쟁력이 없는 기업의 도산이 증가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저항감이 증대된 것

이다.

셋째, 집권기간 중 정부의 고위인사들이 부패혐의에 자주 연루되고 통일국민당 의원들이 의정활동 보다는 정치이권에만 관심이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었던 점도 한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 향후 전망

이번 총선에서 통일국민자유연맹이 승리함으로써 우선 쿠마라통가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sup>3)</sup>과 함께 의회와 행정부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게 되어 정부정책의 입안, 결정, 집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통일국민자유연맹은 공산주의 계열의 JVP<sup>4)</sup>와 선거 공조를 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와 국내 부유층들의 불안을 초래하였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유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총선에서 쿠마라통가 대통령은 타밀반군과의 협상 추진을 재고할 것을 주장하여 왔으며 타밀반군 측도 기존의 평화협정 추진 정책이 변경될 경우 무력 투쟁을 재개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어 평화협정의 조기 종결이 다소 불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 승 호】

3) 스리랑카의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이자 최고 군 통수권자일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재권, 국회해산권, 각의 주재권, 법관임명권 등 막강한 헌법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6년마다 직접 선거로 선출됨.

4) JVP(Janatha Vimukthi Peramuna)는 극좌 싱할리스 우월주의자들로 19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무자비한 테러와 학살을 자행했던 단체임.